

기사 주소: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41502109932039002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 "스마트워크로 코로나19 돌파하겠다"

이미정 기자 lmj0919@dt.co.kr | 입력: 2020-04-15 09:28 | 수정: 2020-04-15 13:32

"코로나19 사태에도 서버 등 수요는 늘어"

[디지털타임스 이미정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부품 조달 어려움은 있지만 서버, 모바일용 하이엔드 제품 증가가 예상된다. 일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업무효율을 높이겠다."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진 반도체 시장 공략의 돌파구로 '스마트워크'라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인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강화하고 있다. 물리적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IT 기반의 통합 커뮤니케이션 환경으로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해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스마트오피스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최근 석 달 여 간의 공사를 마치고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했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기자가 찾은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천안 본사에서는 이진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은 직급에 상관없이 유연한 분위기에서 일하고 있었다. 특히 세련된 사무실 인테리어에 입구 쪽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직원들을 위한 카페, 휴식 공간 등 편의시설이 돋보였다.

스마트오피스 도입 후 대부분 비어있던 출장자의 고정석은 자율좌석으로 바뀌었다. 그 결과 사무실에서 근무 가능한 좌석 수는 기존 199석에서 65% 늘어난 328석이 됐고, 여기에 모션데스크, 전화 부스 등 업무형 편의 공간과 회의 부스 등 다양한 회의실을 배치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 했다.

회사 측은 각자 최적의 업무환경에서 업무효율을 높이면서도 협업과 소통이 가능한 환경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직원들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대표는 "사무공간의 혁신적 개선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투자라는 일본 본사의 글로벌 시설관리 방침에 따라 공간의 비효율적 활용개선, 다양한 업무 형태에 따른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일하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직원들의 소속감 및 만족감을 바탕으로 업무효율을 올릴 수 있는 기업문화로 변화 시켜 궁극적으로 회사 목표달성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변화된 사무실 환경에 대한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는 대체로 높아졌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스마트오피스라는 개념에 거부감이 있었던 직원들도 도입 전과는 달리 대부분 변화된 사무실 환경을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드반테스트는 스마트오피스 도입에 앞서 지난해 7월 전 직원이 공유하는 기업문화로 코어 벨류 'INTEGRITY'를 제정하기도 했다. 혁신(Innovation), 최고(Number one), 믿음(Trust), 권한부여(Empowerment), 글로벌(Global), 존중(Respect), 포용과 다양성(Inclusion and Diversity), 팀워크(Teamwork), 긍정(Yes) 등 9개의 코어 벨류의 머리글자 합체로 일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를 담은 것이다.

아드반테스트코리아는 올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시스템온칩(SoC) 사업 부문에 역량을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력 SoC 테스터로는 모듈 구조에서 다양한 품종의 테스트를 지원 가능한 V93000과 T2000의 두 가지 플랫폼이 있다. V93000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고성능 컴퓨팅(HPC)에, T2000은 이미지 센서나 전력반도체(PMIC) 테스트에 최적화된 제품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DDI) 전용의 T6391의 경우 SoC 테스트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업계 표준 모델이라고 회사 측은 소개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 체인의 부품 조달 어려움은 있지만, 서버·모바일용 하이엔드 제품은 증가가 예상된다"며 "한국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QCD(품질·코스트·납기)를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1위를 선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분야의 주력 메모리 테스터로는 패키지(PKG) 테스트 전용으로 고속 낸드 플래시나 D램 코어 시험용을 대상으로 한 T5833, 고속 D램 인터페이스 시험 전용으로 T5503HS2와 T5511 등이 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회복 이후를 대비한 반도체 업체의 움직임에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 계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거시경제 악화가 반도체 시장, 반도체 제조 장치 시장에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수요처와 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한편, 그룹 내 제휴력과 경영진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어떠한 비상 상황에도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 박동욱기자 fufus@



이진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대표. 박동욱기자 fufus@



최근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완료한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천안 본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제공>



최근 스마트오피스 도입을 완료한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천안 본사. <아드반테스트코리아 제공>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DigitalTimes All Rights Reserved.